한국학연구 제64집 | 407~441쪽 | 2022.2.

# 1990년대 문화계간지들은 어떠한 문화관을 제시했는가

##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을 비교하여-

윤여일*

〈차 례〉

1. 들어가며: 1990년대 '문화의 시대'와 문화계간지들
2.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의 문화관-창간의 문제의식과 기획을 중심으로
3.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의 공통점과 분기점
4.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의 대중문화 인식에 따른 개입방식의 차이
5. 나가며: 1990년대 문화계간지들의 사상사적 의의

**[국문초록]**

본 논문은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 등 1990년대의 문화계간지들을 통해 당시 지식계에서 등장한 비판적 문화론을 조명한다. 비록 1990년대에 문화는 '향유의 대상'(1990년대 초중반)이거나 '자본축적의 영역'(1990년대 중후반)이라는 통념이 주류적 문화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그러한 세태 속에서도 이들 문화계간지는 문화 이해의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화를 사회적 주체 형성과 정치적 권력 작용의 장으로 접근하고, 문화담론·문화연구의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로 상이한 문화관을 견지하고, 차별화를 위한 기획을 이어갔으며, 문화의 생산과 소비 영역 등으로 개입 지점을 달리했다. 본 논문은 이들 문화계간지의 공통점과 분기점을 분석하고, 그것의 사상사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총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9-KSS-1130016)

**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주제어] 1990년대, 문화계간지, 대중문화, 문화관, 주체 형성,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

## 1. 들어가며: 1990년대 '문화의 시대'와 문화계간지들

"가히 '문화의 시대'다. 지난 시대를 지배했던 모든 견고한 것들이 부드러운 '문화' 속으로 녹아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1] 1990년대 중반 한 논자가 토로했듯이 '문화의 시대'는 당대에도 이후에도 1990년대를 기술하는 주요 수식어였다.

사실 1980년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의 시대'였다. 문화야말로 첨예한 전장이었던 시대였다. 광주의 원죄를 안고 출범한 5공화국 지배세력은 미스유니버스경연대회(1980), 국풍81(1981), 아시안게임(1986), 서울올림픽(1988) 등의 거대 행사를 통해 국민의 저항의식을 탈정치화하려 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을 통칭한 이른바 3S정책이나 프로야구 출범도 정권발 사회유화책이었다. 반면 문화는 대항운동의 거점이기도 했다. '문화의 운동화'와 '운동의 문화화'라는 양방향성 속에서 민중운동 진영은 마당극, 탈춤, 문학, 영화, 민중미술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한껏 발휘했다. 대학가 노래패들에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이어진 노래 운동은 대학가와 노동현장에서 기류를 바꿔냈다. 여기서 대항문화는 탈상품화된 민중의 고유 영역이었고, 창조자와 향수자의 일치라는 탈상업주의의 틀을 취했다.

따라서 1990년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언명한 위의 인용구에서 주목할 것은 '부드러운'이라는 형용사다. 1980년대 '문화의 시대'와 달리 '정치와 함께 가는 문화'가 아니라 '정치에서 벗어나는 문화'라는 어감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념에서 문화로', '문학에서 문화로' 등이 1980년대와는 달라진 1990년대의 특징을 드러내는 명제로 종종 거론되었다. 하지만 '문화'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이기에 1990년대가 과연 어떠한 '문화의 시대'였

1) 홍성태, 「정보사회와 문화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10호, 1996, 13쪽.

는지는 당대에도 해석이 분분했고, 오늘날에도 되돌아봐야 할 물음으로 남아 있다.

1992년 '문화이론전문지'를 표방해 『문화/과학』이 창간되던 때 편집위원 심광현은 문화라는 개념을 둘러싼 당시 혼란상을 이렇게 짚었다.

> 문화가 이전에는 주변영역이었으나 이제는 중심영역이 되어가고 있다든지, 그 양적인 규모가 크게 변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 '문화적' 등 문화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담론의 증폭 현상이다. 이 같은 담론의 증가는 적어도 두 가지 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이전에는 현실이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예술적, 종교적 … 이라는 식의 개념 규정을 통해 설명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어떤 현실이 존재하거나 현실적 연관관계가 생겨 새로운 방식의 용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라는 용어 사용이 증대하면서 그 개념 규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현실 이해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2]

1990년대는 확실히 "문화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담론"이 증폭한 시대였으나, 그런 만큼 '문화의 시대'란 혼란스러운 규정이었다. 가령 '이념에서 문화로'와 '문학에서 문화로'라는 명제에서 '문화'의 의미는 결코 같지 않았다. '이념에서 문화로'는 정치적 긴장의 이완과 변혁주체로서의 민중의 연성화에 따른 대중(소비)사회와 대중문화의 부상을 뜻했다. 이 변화에는 제도적 민주화 달성 이후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 완화가 크게 작용했다. 주은우는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금지의 법'이 약화된 효과를 이렇게 밝힌다. "언론의 자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수많은 금서들이 해금조치되었으며,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수용자가 등장하여 스스로의 욕구와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대상을 능동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등 억압과 금지로 특징지어지는 무겁고 폐쇄적인 엄숙주의

2) 심광현, 「문화이론/유물론적 문화지형학 구성의 전망」, 『문화/과학』 창간호, 1992, 91~92쪽.

적 분위기는 과거의 것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3] 한편 신현준은 '금지의 법'이 약화되자 오히려 민중문화도 쇠퇴했다고 짚는다. "금지곡 해제와 영화의 검열완화 조치는 민중문화운동의 급속한 쇠퇴를 초래하며 문화의 탈정치화를 초래한다. 1980년대에 취해진 강력한 통제가 사라지는 대신, 매혹적인 금단의 열매로 보였던 민중문화에의 갈증이 서서히 해소되어갔던 것이다. … 1990년대 소비대중문화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대중의 생활과 정서, 무의식으로부터 사회과학의 시대를 이끌던 1980년대의 정서와 재현물은 차차 위력을 잃어갔다."[4] 그리하여 이념의 시대가 지나고 도래한 1990년대 '문화의 시대'는 소비대중의 출현과 확산이 그 사회적 배경을 이루며, 그때 문화는 대체로 대중문화상품을 의미한다.

한편 '문학에서 문화로'는 문자 텍스트에서 영상 텍스트로 문화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동향과 문화 현상의 이미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명제다. 1990년대는 문예작품 형태의 '읽을거리'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광고, 음반 등 다채로운 '볼거리', '들을거리'들이 일상에서 급격히 퍼진 시대였다. 1980년대 초반 칼라 TV 보급, 1980년대 중후반 비디오 보급에 이어 1990년대에는 PC와 개인휴대통신 같은 뉴미디어가 대거 확산되었고, 방송도 케이블TV, 지역민방,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강내희는『문화/과학』1997년 겨울호「문학의 힘, 문학의 가치」에서 정보통신 혁명이 문화담론 영역에 초래한 효과를 이렇게 파악했다. "문자 매체 중심의 전통적인 문학비평이 문화 논의를 주도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영화, 비디오, 대중음악과 같이 비문자매체로 이루어지는 문화생산물,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과 같이 종래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던 주제들, 나아가 지금까지 봉쇄되어 왔지만 성정치 등의 활성화로 관심을 끌게 된 욕망, 정체성 같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5] 영상-시각 매체의 영향력 증가와 자유화 물결에 따른 자기표현의 욕

3) 주은우,「금지의 명령에서 향유의 명령으로」,『한국사회학』48권 5호, 2014, 76쪽.
4) 신현준,「1980년대 문화적 정세와 민중문화운동」,『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세상, 1999, 231~232쪽.
5) 강내희,「문학의 힘, 문학의 가치」,『문화/과학』13호, 1997, 69쪽.

구 확산 등은 문학텍스트 분석을 넘어선 미학의 논리를 요구했다.

이처럼 1990년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명명할 때, 이 말은 무척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신세대문화, 개성문화, 정보문화, 영상문화, 소수문화, 마니아문화, 오락문화 등의 합성어들과 함께 쓰였다. 1990년대에 영화, 음악, 텔레비전,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거 늘어난 대중문화지는 1990년대식 '문화의 시대'의 한 가지 방증이었다.[6] 대중문화지는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가교하며 대중문화과정의 구성요소로 자리잡았으며, 대중문화지의 범람은 그 자체가 특징적인 대중문화현상이었다. 그런데 지식계에서도 지난 계간지의 호흡을 이어가되 문화담론 생산에 주력하는 잡지들이 생겨났다.[7] 1992년 『문화/과학』[8]을 시작으로 1993년 『상상』, 1994년 『리뷰』, 『오늘예감』이 잇달아 출간되었다.

본 논문은 문화이론지, 문화전문지임을 천명하며 등장한 1990년대 문화계간지들을 조명함으로써 1990년대 문화론의 일면을 복원할 것이다. 비록 1990년대에 문화는 '향유의 대상'(1990년대 초중반)이거나 '자본축적의 영역'(1990년대 중후반)이라는 통념이 주류적 문화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그러한 세태 속에서도 이들 문화계간지는 문화 이해의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주요 물음은 다음과 같다. 문화계간지들은 각각 어떠한 문화관을 제시하고, 이를 어떠한 기획으로 펼쳐냈던가. 나아가 이들 간에 무엇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차별화되었던가. 이들 문화계간지가 등장한 1990년대 초반부터 사라지는 1990년대 후반까지 전개된 논의가 갖는 사상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문화/과학』에 관해서는 연구가 있지만[9], 1990

6)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523쪽.

7) 원용진은 주간 내지 월간을 주기로 발행되는 각종 여성잡지, 영화잡지, 시사잡지들과 구분하기 위해 이들을 대중문화전문지라고 명명했다(원용진, 「'계몽'잡지 시대의 종언? – 최근의 문화담론과 대중문화전문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 8호, 1997, 138~139쪽).

8) 『문화/과학』은 1992년 6월 반년간지로 창간되었으나 1997년 봄호부터 연 3회 발간되었고 1999년 봄호부터 계간지로 전환되었다.

9) 『문화/과학』에 관한 연구로는 오창은, 「유물론적 문화론에서 탈근대적 문화정치로」, 『문화/과학』 30호, 2002; 심광현, 「『문화/과학』 20년의 이론적 궤적에 대한 비판적 회고」, 『문화/과학』 70호, 2012; 이윤종, 「『문화/과학』과 1990년대 한국의 문화론」, 『구보학보』 19호, 2018 등이 있다.

년대 후반에 종간된 『상상』, 『리뷰』, 『오늘예감』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이들 문화계간지를 연관지어 1990년대 문화담론의 논점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10] 하지만 이들 문화계간지는 개별적으로 조사하기보다 상호비교할 때 1990년대 문화담론 지형 속에서 각각의 위치와 특징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이들 문화계간지는 문예론 중심의 기존 잡지계와 담론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이어 등장했지만 서로 간에 차별화 의식이 분명했으며, 상호 교류와 상호 비판을 통해 저마다의 지향을 사회화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네 종 문화계간지의 지향을 비교하고 분기점을 밝혀 1990년대 문화계간지가 형성한 문화담론의 논점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 2.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의 문화관 －창간의 문제의식과 기획을 중심으로

### 1) 『문화/과학』의 문화관

『문화/과학』은 1992년 여름 '문화이론전문지'로 창간되었다.[11] 창간사에서 『문화/과학』의 문화관이 제시된 대목을 살펴보자.

> 우리가 '문화과학'의 이름으로 진보의 기획에 동참하는 것은 문화가 전에 없이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단계 지배세력은

10) 1990년대 문화계간지를 상호 연관지어 조명한 시도로는 이동연, 「의미화실천, 주체화양식, 실험공학의 장: 한국 문화연구의 생산적 논쟁을 위해」, 『문화/과학』 13호, 1997; 하상일, 「90년대 문화담론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문화잡지에 대한 비판적 점검」, 『오늘의문예비평』 32호, 1999가 있는데 모두 1990년대에 나온 것들이다.

11) 창간 시점인 1992년은 현실사회주권 붕괴와 1991년 강경대 사건 이후의 정국으로 진보운동이 충격과 무기력과 사로잡히고 진보이론이 아노미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문화/과학』은 진보운동의 새로운 이론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등장했으며, 창간사는 "역사의 한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된다.

>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구축으로 사회의 전영역을 장악하면서 자신의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그 지배구조를 변혁하고자 한다. 오늘날 문화가 이 재생산과 변혁에 대해 가지는 역할은 아주 크다. 문화는 재생산에 지대한 기능을 하는 이데올로기 작동의 중심영역이면서 또한 변혁의 꿈이 마련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해 과학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것은 현 단계지배에 대한 정확한 대응의 하나이며, 지배구조의 변혁을 위한 한 단초를 여는 일이다. 우리 '문화과학'은 문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보를 통해 변혁에 기여할 것을 창간 취지로 삼는다.[12]

『문화/과학』은 '문화' 영역을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보"를 자기 역할로 선언했다. 창간호 특집은 '과학적 문화론을 위하여'였으며, 창간 주역인 강내희와 심광현은 창간 좌담에서 "자본의 재생산이 인간의 정서나 감수성을 재조직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화환경이 형성"되었으며, "문화 심급이 사회구성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라고 공히 지적했다.[13] 창간호에 수록된 「9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 모색」에서 이성욱은 1980년대 문화운동의 문화관은 "문화라는 범주 혹은 개념은 이미 자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그 내용을 민중문화적 사실로 구성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이데올로기 및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자본주의 문화구성체의 성격과 문화생산양식",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날로 첨단화되어가는 매체"에 관한 "과학적인 문화론을 정초"해야 함을 강조했다.[14]

창간 이후 『문화/과학』은 1990년대 내내 자생력 있는 과학적 문화이론 구성, 문화적 실천의 전략 마련, 문화현실에 대한 분석을 위한 특집들을 이어가는데, '문화'가 특집명으로 드러난 것만을 나열해도 '다시 문화론을 말한다'(6호, 1994 여름), '문화환경과 대중정치'(7호, 1995 봄), '과학, 기술, 문화'(8

12) 편집위원회, 「『문화/과학』을 창간하며」, 『문화/과학』 창간호, 1992, 2쪽.
13) 강내희 · 김정환 · 김진균 · 박거용 · 심광현, 「현단계자본주의 문화현실과 과학적 문화이론의 모색」, 『문화/과학』 창간호, 1992, 14, 17쪽.
14) 이성욱, 「9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모색」, 『문화/과학』 창간호, 1992, 164~175쪽.

호, 1995 겨울), ‘21세기 한국문화 어디로?’(12호, 1997 가을), ‘한국의 문화담론 문제 있다’(13호, 1997 겨울), ‘문화공학과 문화정치’(14호, 1998 여름), ‘문화와 경제’(15호, 1998 가을), ‘문화사회로의 전환’(17호, 1999 봄) 등에 이른다.

이 중 마지막 특집인 ‘문화사회론’은 『문화/과학』이 1990년대에 제시한 문화운동의 지향을 아우르고 있다.[15] 문화사회론은 문화를 물질적 생산과 정치적 권력의 장이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담론과 재현이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는 지대로 설정하며, ‘문화공학’적 접근을 통해 문화생산과 수용과정에 실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사회론이었다. 여기서 ‘문화공학’은 문화적 생산과정 및 재생산과정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적 접근을 보다 강조하고자 고안된 개념이었다.

창간 편집위원으로는 강내희, 박거용, 심광현, 조만영, 이득재, 이성욱 등 다양한 전공자가 모였고, 이들은 일상의 다양한 소재들을 문화이론의 논제들로 변환해내고자 주력했다. 『문화/과학』은 다음호 기획을 미리 공지하는 ‘편집 예고제’를 시행해 『문화/과학』발 문화이론을 체계적으로 축적해갔다.

### 2) 『상상』의 문화관

『상상』은 『문화/과학』 창간의 이듬해인 1993년 가을에 등장했다. 표지에는 “문학의 새로움, 문화의 새로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마찬가지로 창간사에서 문화관이 적시된 대목을 살펴보자.

> 소위 대중문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대중문화란 무엇일까. … 그 현상들은 너무 감미롭고 매혹적이어서, 그 감미로움의 매혹은 우리를 금방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색과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 우리는 어느덧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15) 문화과학사는 1990년대 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1999년 『문화사회를 위하여』를 펴냈다.

> 산업화된 대중문화가 대중들의 정서를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처음에는 자본의 주변부에 기생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괴물처럼 비대해진 대중문화산업이 자행하는 문화의 천박한 상품화, 즉 문명적 야만 상태에 철저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 한편, 그 시대의 격류 앞에서 무력감과 자조에 빠져 아예 세계와의 통로를 닫아버리고 자폐적 공간으로 숨어 들어간 소위 엘리트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도 신랄한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 〈상상〉은 우리가 직면한 문화의 절망적 교착상태를 타개하려 한다. 반성이 결여된 물신적 대중문화와 전문주의를 가장한 자폐적 엘리트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그 간극을 메우는 비판적인 가교가 되고자 한다. 넘나들고 감싸안으며, 이 죽음의 절망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서 생동하는 문화를 생성해낼 것이다. 요컨대, 〈상상〉은 세대와 장르를 넘어서 작가적 대중주의, 대중적 작가주의를 옹호한다.[16]

『상상』의 창간사는 '대중문화'의 시대라는 시대인식이 투철하다. 『문화/과학』의 창간사와 견준다면, 대중문화산업이 초래하는 정신적·사회적 해악을 직시하면서도 대중문화에 대한 이중적 혹은 전략적 태도를 내보인다. "반성이 결여된 물신적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전문주의를 가장한 자폐적 엘리트문화"도 경계하며, "작가적 대중주의, 대중적 작가주의"를 옹호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상상』은 대중문화 사회에 대한 비판적·좌파적 접근보다는 대중문화 현상의 다원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창간호의 지면 구성을 살펴보면 〈상상의 선택〉에 「소설: 단편소설과 상품미학」, 「영화: 쏟아지는 영화, 고르기의 어려움」, 「연재: 비디오에 대하여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신세대 작가들의 여행」, 〈비평·논문〉, 〈소설〉, 〈시〉를 수록하고, 특집은 '새로운 문학의 문을 두드린다'이고, 〈상상에서 만난 사람들〉에는 「소설과 영화가 만나는 한 풍경」을 담았다. 즉 기존 문예계 간지와 비교하건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학 영역에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영역을 더해 지면을 구성했다. 2호부터는 〈상상의 선택〉에 '대중음악'을 배

16) 주인석, 「창간에 부쳐: 상상, 넘나들며 감싸안는 힘」, 『상상』 창간호, 1993, 10~11쪽.

치하고 비디오, 광고, 만화 등으로 비평영역을 넓혀갔으나 3호부터 편집장과 편집위원들이 전부 교체되며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17] 문학 작품 수록에 할애되는 지면이 늘어나고 '이야기소설론'이나 '동북아문화론' 등의 『상상』 고유의 담론 형성에 힘을 실었다. 지면 구성을 보았을 때 〈상상의 선택〉은 유지되고 그 밖에 〈작가탐방〉, 〈논문·비평〉, 〈소설 연재〉, 〈서평〉 등이 더해졌는데, 기존 문예지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었다.[18]

### 3) 『리뷰』의 문화관

1994년 11월에 창간된 『리뷰』는 『상상』 창간의 주역들이 옮겨가 만든 잡지였다. 그 중 주인석은 이후 『이매진』의 편집장이 된 시기에 『리뷰』의 등장 이유를 이렇게 회고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뷰』는『상상』을 없애기 위한 계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리뷰』를 같이 만들게 된 건 내가 만든 거지만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 버린 『상상』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나는 『리뷰』는 『상상』이 없어질 때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다."[19]

그렇다면 『리뷰』는 어떻게 차별화를 꾀했는가. 역시 창간사를 들여다보자.

> 원래 Review의 의미는 다시 생각하거나 되돌아보는 것이다. 성찰의 의미 말이다.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성찰의 행위가 아닐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꼼꼼히 탐색해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꿰뚫어 보고자 하는. 그렇다면 문화란 세계에 대한 Review다. 문화에 대한 비평의 일환으로서의 Review란 세계에 대한 Review인 문회를 Review하는 작업이다. Review를 Review하는 셈이다. 그런 근원적인 의미를 Review하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창간하는 새로운

17) 1993년 창간 당시 편집장은 주인석, 편집위원은 임재철, 서영채, 강헌, 김종엽이었으나 3호부터 편집위원이 장경렬, 정재서, 진형준, 류철균으로 교체되었다. 이들은 각각 영문과, 중문과, 불문과 교수 그리고 문학평론가였다.

18)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524쪽.

19) 주인석, 「소통, 매체 그리고 새로움-주인석」, 『오늘예감』 7호, 1996, 209쪽. 여기서 주인석은 『상상』을 떠난 주된 이유로 출판사 사장과의 갈등을 꼽는다. 『상상』 편집진의 지향과 맞지 않는 원고의 수록을 요구하고, 특정인을 편집진에 넣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정기간행물의 제호를 REVIEW로 정하기로 했다. Review, Review의 Review. 다시 보기, 다시 보기를 다시 보기. 그런 이중 나선적인 사유로 근원을 통찰하기.[20]

『리뷰』는 문화의 의미를 '성찰'과 '비평' 쪽으로 바짝 끌어당겨 본격적인 문화비평지로 자기 위치를 정립했다. 창간호의 구성을 보면 〈Epigram〉, 〈Review〉, 〈Interview〉, 〈ISSUE〉, 〈Forum〉, 〈Criticism〉, 〈창간 기획〉, 〈풍경이 있는 산문〉 등의 코너를 꾸리고, 이후로도 〈에피그램〉, 〈리뷰〉, 〈인터뷰〉, 〈특집〉 등의 코너를 이어갔다. 즉 『상상』과 견주자면 소설, 시, 영화, 음악 같은 장르별 배치보다 해당 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지면을 구성했다. 창간호의 지면 구성을 살펴보면 〈Review〉에는 「Movie: 불 꺼진 비상구 – 역사 · 폭력 · 섹스」, 「Popular Music – domestic: 문제는 록 정신이다」, 「Popular Music–overseas: 현실의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절망, 얼터너티브 록」, 「Visual Art: 얼음의 권좌에 앉은 제왕 –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 「Book: 아직 투자는 끝나지 않았다」, 「Literature: 다시 문제는 '부정적 상상력'이다」였다. 〈Interview〉에는 「서태지, 주류 질서의 전복자」, 〈ISSUE〉에는 「대중문화 시대의 문화적 항체, 매니아」가 수록되었고, 〈창간 기획〉은 'PC통신, 그 한계와 가능성'이었다. 이들 코너 중 『상상』의 〈상상의 선택〉처럼 『리뷰』는 〈Review〉가 중심축이었는데 문학에 치중하기보다 비주얼아트, 대중음악, 사이버컬쳐, 비디오 등으로 비평 영역을 넓혀갔다. 창간호 편집위원도 문학평론가 권성우와 서영채 이외에는 각 분야별 문화평론가들이 포진했다. 전체 17호 가운데 특집만을 본다면 영화(3회), pc통신 · 멀티미디어(2회), 언더그라운드 문화 · 록(2회), 한국문화산업 · 대중문화 정책(2회) 이외에 에로티시즘, 검열, 올림픽을 논제로 다뤘다.

20) 주인석, 「왜 REVIEW인가」, 『리뷰』 창간호, 1994, 6~7쪽.

### 4) 『오늘예감』의 문화관

『오늘예감』의 창간은 『리뷰』보다 한 달 앞선 1994년 10월이었다. 『오늘예감』의 문화관은 '문화죽이기'라는 말로 요약된다. 마찬가지로 창간사인 「시작하는 예감: 부자 죽이기, 문화죽이기」에서 일부를 인용한다.

> 이럴 때 왜 하필 '문화' 죽이기인가?
>
> 자명하다 못해 투명해진 듯한 자본주의 남한사회의 깊게 곪아만 가는 모순들이 법률과 도덕률이라는 기만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너도나도 '문화'라는 단어를 접두어나 접미어로 사용하지만, 대중들에게 문화란 아무런 가치판단과 갈등, 대립이 필요 없는 다양한 삶의 형식 자체로만 인정되는 것 따위를 우리는 의심한다. 더구나 흔히 진보적인 지식인을 자임하는 자들의 실천은 대중의 일상에서 일상으로 깊어만 가는 지배계급의 문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한다. …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죽이기'를 선언한다. … 우리의 '죽이기'의 칼날은 자명한 모든 것, 머뭇거리며 대항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향해 있다. 왜냐고? '새로운' 문화는 '당연한' 문화를 파괴하고 '배제된' 문화를 실험하는 가운데 생산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 사회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모든 문화라 이름 붙는 것에 실험적인 시비를 걸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작업은 문화에 관념적 특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들어앉아 있던 두꺼운 방어막을 파괴하는 데 있다. 문화라는 명패 밑에 깔려 있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삶의 구조를 들춰내고 문화라는 이름 아래에는 싸움거리가 아직 무궁무진함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21]

『오늘예감』 4호 「시작하는 예감: 색안경을 끼고 문화를 바라본다」는 '문화죽이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죽여야 할 문화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그 문화는 "지배문화", "정부가 장려하는 문화"이다. 둘째, 왜 죽여야

21) 편집위원회, 「시작하는 예감: 부자 죽이기 문화 죽이기」, 『오늘예감』 창간호, 1994, 6~7쪽.

하는지를 밝힌다. 그 까닭은 지배문화가 지배와 피지배의 기성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중문화가 일회적 소비와 찰나적 자유에 안주할 것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다만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배문화를 완벽하게 죽일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안다"며, "특유의 투박함"과 "겁없는 저돌성"을 바탕으로 "주류가 이루는 대중문화 혹은 지배문화에 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잊지 않고 항상 꺼내서 착용할 수 있는 의심과 비판의 색안경, 저항과 실험의 색안경"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토로한다.[22]

『오늘예감』의 목차는 이러한 "색안경"의 목록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창간호의 지면 구성은 다음과 같다. 「intro: 시작하는 예감: 부자 죽이기 문화 죽이기」, 「특집 기획: 누가 PC통신을 장악할 것인가?'」, 「일상문화도전: 삐딱하게 혹은 깐깐하게」, 〈문화논단〉, 〈대학문화 · 저항과 쟁점〉, 〈장르비평실험〉. 이러한 지면 구성과 수록 글에서 『상상』, 『리뷰』와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데 『상상』이 문학과 그 외곽의 문화에, 『리뷰』가 대중문화와 하위문화에 주안점을 둔 비평지였다면, 『오늘예감』은 스스로 선동적인 매체이기를 지향했다. 5호의 머리글은 『리뷰』를 비롯한 다른 문화계간지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오늘예감』은 '문화'라는 거대화두와, 그 주변으로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던 '담론'의 틈새를 비집고 〈문화죽이기〉라는 보잘 것 없는 출사표 하나를 던지며 튀어나왔다. 한동안 '문화'를 다룸에 있어 유행어가 될 만큼이나 그럴듯했던 '읽기'나 'REVIEW' 따위가 아니고 대체 '죽이기'라니! 그 철없는 과격함이라니! 변종 맑시즘이나 나열하며 구차스런 장르계 보도를 그려대는 식으로 문화를 '말하고' '분석하고' '교시하기'보다는 갑작스레 잉여되어 버린 종자들의 형언할 수 없는 억하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싶었다. 대체 우리의 억하심정이 정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오늘예감』이 이론지도, 비평지도, 문학지도 아닌, 문화비평 '저널'이라는 색

22) 편집위원회, 「시작하는 예감: 색안경을 끼고 문화를 바라본다」, 『오늘예감』 4호, 1995, 8~9쪽.

깔 불분명한 이름표를 오래도록 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23]

## 3.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의 공통점과 분기점

### 1) '문학'을 넘어서야 할 이유들

문화이론전문지(『문화/과학』), "변화하는 시대의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탐색하고 수용하는 새로운 잡지"(『상상』), 문화비평지(『리뷰』), 문화비평저널(『오늘예감』) 등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며 1992년부터 3년 사이에 등장한 네 종의 문화계간지.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기존 문예계간지의 문학중심성을 넘어서고자 한 것이었다.

『문화/과학』의 창간사는 1980년대 운동세력이 "문화를 문예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었기에 "문화운동이 문예운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체 문화판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과학적 문화이론을 수립하여 "진보적 문예론이 지향하는 현실주의론"으로부터 "현실주의 문화론"으로 나아갈 것을 주창했다.[24] 『상상』의 「원고모집」은 스스로를 이렇게 기술한다. "상상은 문학을 비롯한 모든 문화의 경계를 트고 서로 넘나들며, 풍요로운 정신을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잡지입니다. 상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함께 성찰하고 기획합니다. 새로운 문화의 담론, 깊고 넓은 통찰의 자리, 상상이 추구하는 이상과 함께 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잡지"임은 "문학을 비롯한 모든 문화" 영역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리뷰』 역시 "우리 앞 세대는 문학을 중심으로 문화를 분석했지만 우리의 주된 비평의 대상은 산업적인 대중문화이다"라며 반문학중심성을 선명히 드러냈다.[25] 『오늘예감』은 문학 장르를 완전히 상대

23) 편집위원회, 「시작하는 예감: 우리를 위한 마지막 변명」, 『오늘예감』 5호, 1996, 7쪽.
24) 편집위원회, 「『문화/과학』을 창간하며」, 『문화/과학』 창간호, 1992, 2쪽.

화했다. 〈단편소설〉과 〈詩와 評〉이라는 코너가 간헐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소설과 시의 발표와 평론에 할애되는 지면은 적었고, 〈문화논단〉이나 〈갈래비평실험〉 등의 코너에서 음악, 영화 등과 함께 거론되더라도 문학은 대체로 맨 뒤에 배치되었다.

이들 문화계간지는 기존 문예계간지의 형태로는 '욕망구조의 변화', '유통구조의 혁신', "정서구조나 지각구조에 있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형성규준들"[26]을 파악하기 어렵거나(『문화/과학』), 대중문화의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상상』,『리뷰』), 대중문화를 매개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응할 수 없다(『오늘예감』)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문학 창작과 평론을 넘어 문화비평, 영화비평, 음악비평 등으로 담론영역을 확장하고 욕망, 육체, 쾌락, 이미지, 기호, 스타일, 미디어, 감성, 환상, 미디어, 사이버, 도시, 환경 등의 전략적 토픽을 개발해갔다.[27]

### 2) '계몽성'과 세대의식

문학 너머의 문화 영토로 담론영역을 확장시킨 것과 더불어 이들 문화계간지 진영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문화/과학』을 제외한다면) 스스로를 새로운 세대로 명명하고 그렇게 자리매김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세대 인식과 대중문화론이 맺어지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먼저 『상상』과 『리뷰』이다.

> 〈상상〉은 신세대잡지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세대란 1960년대와 7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아니다. 이 혼돈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 하는 세대

25) 주인석, 「왜 REVIEW인가」, 『리뷰』 창간호, 1994, 10쪽.
26) 이성욱, 「9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모색」, 『문화/과학』 창간호, 1992, 157쪽.
27) 문화계간지는 아니지만 '현실문화연구 그룹'은 집단 연구를 통해 『압구정동: 유토피아디스토피아』을 시작으로 『가까이서 보기 멀리서 읽기』, 『광고의 신화 욕망 이미지』,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신세대론혼돈과 질서』, 『섹스포르노에로티즘』, 『공간 문화 서울』, 『회사가면 죽는다』 등의 기획서를 연이어 선보였다.

이다. … 전세대를 지탱해주던 돋보이는 금기가 눈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신세대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금기들이 닥쳐오고 있다. 마치 유령과 같이. 그 신세대들에게 전시대의 교양의 척도와 도덕률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시대착오적이다. … 소위 신세대는 대중사회 속에서 대중문화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들은 문자언어에 대한 훈련이 선배세대들에 비해 덜되어 있으며, 약간 가볍기도 하고, 산만해 보이기도 한다. 그건 그 세대의 조건이지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문자에 대한 편집증에서 자유로우며, 이미지나 소리와 같은 다른 감각과 사유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그들은 멀티화되어 있다. 더 총체적이고 더 동시적이다. 물론 아직 그들은 성숙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편들 생각도 없다. 단지 변화를 말하자는 것이다. 전세대들이 천박하고 물신적인 저질문화라고 매도하는 대중문화가 신세대들에게는 이미 교양이 되었다.[28]

문화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한국에서 소위 대중문화를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첫 세대이다. 우리가 지난 시대의 고전적인 교과서에서 배웠던 지식들은 우리의 문화를 설명하는 데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끝이자 시작이다. 우리 앞세대는 문학을 중심으로 문화를 분석했지만 우리의 주된 비평의 대상은 산업적인 대중문화이다.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의 테크놀로지를, 작가가 아니라 문화산업의 자본적 구조를, 작품이 아니라 상품의 미학을 분석하고 비평해야 하는 우리는 불행한 걸까 행복한 걸까. 도스토예프스키를 예찬할 수 있었던 지난 시대의 비평가는 차라리 행복했다. 그러나 우리는 괴물 같은 문화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하는 불우한 과도기의 문화비평가들이다.[29]

사실 『상상』과 『리뷰』의 창간사는 주인석을 비롯한 일군의 편집위원들이 모두 작성하였기에 유사성이 크고, 창간사가 창간 이후 해당 잡지의 행방을

28) 주인석, 「창간에 부쳐」, 『상상』 창간호, 1993, 9~13쪽.
29) 주인석, 「왜 REVIEW인가」, 『리뷰』 창간호, 1994, 11쪽.

그대로 밝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대중문화의 세례를 받은 첫 세대가 만드는 잡지라는 세대의식은 또렷이 드러난다. 이들은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소리의 테크놀로지에 민감하고, 전세대의 금기로부터 자유로우나(『상상』) 그만큼 혼란 속에 처해 있는 자들(『리뷰』)로 자신을 그려냈다.

1950년대생인 강내희와 심광현이 주도해 좌파이론의 재구성을 꾀한 『문화/과학』과 달리 1960년대생이 주축인 초기 『상상』과 『리뷰』 동인에게 문화, 특히 대중문화는 '신세대'인 자신들이 개척할 담론영역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학계에서 신진연구자였는데 영화 그리고 대중음악, 만화, 광고, 연극 등 최신의 대중문화들에 대한 감식안을 체득하고 문법을 고안해 전문적 학술담론과 저널리스트 비평의 중간 지점에서 대중문화비평의 장을 개척하고 활동했다. 『말』편집위원으로 대중문화비평가였던 김창남의 다음 기술은 대중문화를 '리뷰'하는 이러한 실천이 당대에 지니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 대중문화를 읽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적어도 대중문화가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대중문화의 미세한 결과 결 사이에 이데올로기와 쾌락, 욕망과 환상,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한눈에 알아채기 어려운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얽혀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의미는 그러한 미세한 결을 세밀히 읽어냄으로써 찾아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30]

『오늘예감』은 『상상』, 『리뷰』와는 또 달랐다. "이 땅의 문화일상과 문화상품에 대하여 참신하고 공격적인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문화비평지 계간 『오늘예감』"(원고모집), "『오늘예감』은 별 이유도 없이 세상을 향해 저주하기를 일삼는 젊은 문화비평지입니다"(편집위원초빙)라고 천명하듯 그들의 젊음은 보다 과격성과 도발성을 띠고 있었다. 『오늘예감』 2호 기획 특집 '순응하는 젊음이여, 그대의 암울한 내일에 저항하라!'의 결론부 「테제로 제안하는 일탈」의 열 가지 테제를 옮겨보자.

---

30)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한울, 1995, 32쪽.

1. 정상과 비정상의 일반적 구분을 무시하라.
2. 법과 제도를 어겨라! 적발되면 매번 저항하라! 약점은 그들-지배권력에게 더 많다.
3. 가족의 '작은' 바램을 경계하라. 특히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논문, 배우자의 꼬드김을 경계하라.
4. 매체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라. 개입하라. 하지만 기대도 가지지 말고 믿지도 말라.
5. 창조적인 노동을 하라. 카피맨이나 커피접대부, 부장의 바둑친구로 스스로를 노예화시키지 말라.
7. 무엇이든 실험하라. 또한 언제나 의심하라. 그리하여 침묵을 거부하라.
8. 무질서도를 증가시켜라. 모든 새로운 시작은 안정된 질서를 교란하는 무질서도 증가에서 생산됨을 기억하자.
9. 남달라야 한다는 소아병으로부터 벗어나라.
10. 지금까지의 일탈자들은 단지 '일탈'을 구매했을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일탈'을 조직하는 것이다.[31]

『오늘예감』은 필자 소개에 항시 "70年産", "71년생"처럼 출생년을 밝힐 만큼 세대의식이 강했다. 8호에는 「七十年代産 文化獨立宣言」이 실리기도 했다. 『상상』과 『리뷰』의 창간 주역들이 1960년대 초중반 생으로 당시 30대 초중반이었다면, 『오늘예감』은 1970년대 초반 생이었고 당시 대부분 20대였다. 『오늘예감』의 '젊음'은 『상상』과 『리뷰』의 '신세대'와 비교하자면 기성문화계, 기성학계가 외면하는 논제들을 도발적이고 이단적으로 제기하는 동력이자 이유였다. 『오늘예감』의 특집명을 보면 '누가 PC통신을 장악할 것인가'(창간호), '순응하는 젊은이여, 그대의 암울한 내일에 저항하라'(2호), '영화100주년 특집: 꿈깨자 한국영화'(3호), '공간: 그곳에서 놀기, 싸우기'(4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5호), 'Drop out!!'(6호), '죽어버린 마이

31) 편집위원회, 「테제로 제안하는 일탈」, 『오늘예감』 2호, 1995, 62~68쪽. 테제 6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너리티와 똥파리들에 고함'(9호)처럼 '장악', '저항', '싸우기', '파괴'처럼 과격하고 도발적인 용어가 곧잘 사용되었다.

## 4.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의 대중문화 인식에 따른 개입방식의 차이

### 1) 대중문화 비판과 대중문화 부정 사이에서

이들 문화계간지는 당시 성황이었던 대중문화지들과 견준다면, 대중문화를 향유의 소재만이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 접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0년대는 민중문화가 쇠퇴하고 대중문화가 부흥한 시대였다고 곧잘 회자된다. 이는 민중문화의 표현양식들이 위축되고 소비주의적 상품문화가 번창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중문화 개념은 계급론적 정치 모델처럼 지배/피지배 문화의 대립구도를 전제하는데, 사회분화와 변동에 따라 개념의 적실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군은 1990년대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격전지로 대중문화를 주목했던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기존 민중운동과 저항운동의 계보로부터 (단절을 포함한) 계승 의식을 지닌 진보적 성향의 연구자, 비평가들로서 대중문화의 동학과 현상을 비판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접근했다. 하지만 대중문화 부정론을 취하지는 않았다. 대중문화는 새로운 정치의 장이자 자신들의 활동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중문화 인식 양상을 드러내고자 1995년 무렵 문학계의 대담 「90년대 문학계의 신쟁점을 논한다」에서 대중문화에 관한 김명인의 발언을 취해 비교해보자.

> 대중문화는 철저한 상품문화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새로운 고안물일 수도 있고 원래 비판적이고 독창적이던 문화가 상품화과정 속에서 그 생명을 잃은, 말하자면 '아우라'를 잃은 대량복제물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사회구성체 내의 착취관계를 은폐하고 소외와 허위의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선 공통

> 된다.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 그것이 지배계급의 힘에 의해 정당화되는 체제에서의 '대중의 문화'는 이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다. 대중문화가 인간해방의 생명력을 지닌 사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계급사회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체제를 문제삼지 않고 대중문화를 그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무의미하다. 대중문화는 오직 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항체에 의해서만이 견제되고 그 본질이 드러나고 비판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 항체는 곧 체제 자체를 궁극적으로 문제삼는 '불온한' 비판문화이고 변혁운동의 문화이다.[32]

이 발언은 김명인의 대중문화관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대중문화에 관한 당시 문학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없으나, 1990년대 문학계와 지식계에 존재하던 한 가지 논법이라고는 할 수 있다.[33] 또한 논자들에 따라서는 대중문화를 산업적 대량문화상품과 등치하거나, 비민주적 이념의 선전도구로 간주하거나, 그것이 대중의 건전한 생활의식과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말초적 쾌락에 젖게 만든다며 경계했다. 대중문화의 속성을 쾌락성, 즉물성, 퇴폐성, 소아성, 몰아성, 개인성에서 찾는 언설들도 많았다.

하지만 문화계간지들의 대중문화관은 이와 달랐다. 『문화/과학』의 "문화는 계급투쟁의 장소"라는 문제설정은 상업적·보수적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되기 십상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있지만, 문화 영역에서 기존의 억압적인 주체형성 과정을 해체해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해내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소산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대중문화상품과 등치하고 "대중문화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전달수단"이라는 식으로 비좁게 이해하려는 경향과는 거리를 두었다. 가령 강내희는 "대중문화의 욕망창출이 욕망의 관리, 통치만이 아니라 넘쳐흐르는 어떤 힘, 인간이 지닌 억제되지 않는 어떤 전복의 가능성을 지닌 힘이라는 견지에

32) 도정일·황현산·임규찬·김명인·손경목, 「90년대 문학계의 신쟁점을 논한다」, 『실천문학』 39호, 1995, 148쪽.

33) 원용진은 당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창작과비평』, 『실천문학』, 『세계문학』은 대체로 상업성과 대중성을 경계하며 대중문화와 거리를 두고 민족문학, 시민문학 등이 문화를 이끌고 갈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분석했다(원용진, 위의 논문, 144쪽).

서 사고할 필요"를 강조했다.[34] 대중문화는 그 자체로 지배계급의 영역이 아니라 권력을 지닌 자들과 소외된 자들 간의 저항과 반동, 길항이 교차하는 정치의 장인 것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에서 대중의 복합적이고 불확정적인 공모, 저항, 굴절, 탈주, 해방의 계기들을 포착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른 문화계간지가 견지한 입장의 일면은 당시 『상상』이 주최하고 문화계간지의 주역들이 모였던 특별좌담 「대중문화잡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 기존 문예계간지와 선을 긋는 발언들을 취해보자. 당시 김탁환은 『상상』 편집위원으로, 한정수는 『오늘예감』 편집장으로서, 손동수는 『현실문화연구』 편집장으로서 참가했다.

> 김탁환: 먼저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잡지의 차이를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잡지가 계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잡지가 변했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계몽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변화는 잡지가 편집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살피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의 잡지가 몇 명의 편집위원이 에꼴로 형성되어 소수의 지식인들이 읽고 총체적인 시대정신을 좇아 글을 썼다면 90년대 이후의 잡지는 '지식인'과 '시대정신'이라는 두 축에서 벗어나고 있죠. 이건 『창작과 비평』, 『문학과사회』와 『상상』, 『리뷰』, 『오늘예감』을 비교하면 쉽게 드러납니다.
>
> 손동수: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과 같은 문학잡지들이 힘을 발휘하던 시기, 문학계간지의 전성시대라고 불렸던 그 시기와 90년대 이후에 나온 잡지들의 차이는 우선 그 분화의 정도에 따라 살필 수 있을 겁니다. 80년대 상황 속에서 잡지는 지속적으로 지식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나 실천의 기반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 부수가 만 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학지를 추구하는 잡지들은 대체로 사회비평지나 이론지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었죠. 이런 미분화된 상태는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 힘이 모이고 흩어지는 방식에 대한 합리적

34) 강내희, 「대중문화, 주체형성, 대중정치」, 『문화/과학』 6호, 1994, 105~106쪽.

분석과 반성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문학의 창작부분과 비평부분이 분리될 수 없는가. 시나 소설은 분리될 수 없는가. 대중문화의 요소들은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가. 이런 물음들이 대중 속에 있었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잡지들이 만들어진 거죠.

김탁환: '계몽적인 것은 도덕적'이라는 것이 80년대 계몽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몽적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사유하고 극단적으로 글 쓰고 끝까지 밀어부쳐보는 것이죠. 가장 계몽적인 것이 가장 비도덕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천문학』이나 『창작과 비평』처럼 80년대의 계몽성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과, 90년대 이후 대중문화잡지의 편집자들이 궁극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몽의 본질을 한쪽은 도덕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극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삐끗삐끗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록에 심취, 몰입하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건데, 반대편에서는 거기에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중문학이나 대중문화에 대하여 논의할 때도 '대중'이란 말에 불건전함, 비도덕성 같은 개념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중'문학, 혹은 '대중'문화는 경박하고 비도덕적이며 전혀 계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 한쪽은 몰입해 들어가 흥청대고, 다른 쪽은 물러서서 칼질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자겠죠.[35]

이 발언들에서 『창작과비평』,『실천문학』,『문학과사회』와 『상상』, 『리뷰』, 『오늘예감』을 가르는 지점은 '계몽성'이었다. 기존 문예계간지들이 대중문화를 지배이데올로기 생산의 도구로 간주되고 대중문화적 취향을 저급한 것으로 가치절하했다면, 새로운 문화계간지들은 대중문화를 대중적 욕망의 향유가 실행되는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인 장으로 파악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적 욕구와 감수성들을 정당한 분석의 대상으로 전유하겠다는 것이다. 『상상』과 『리뷰』는 대중문화의 지나친 상업성을 경계하되 '계몽성'을 거부하여 엘리트주의적 시각과도 변별하고자 했다.[36] 『상상』의 창간사에 있는 다음의

35) 손동수 · 한정수 · 김탁환, 「특별좌담: 대중문화잡지,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 13호, 1996, 304~306, 316쪽.

내용은 『리뷰』에도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어느덧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산업화된 대중문화가 대중들의 정서를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처음에는 자본의 주변부에 기생하는가 했더니 어느새 괴물처럼 비대해진 대중문화산업이 자행하는 문화의 천박한 상품화, 즉 문명적 야만 상태에 철저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한편 그 시대의 절규 앞에서 무력감과 자조에 빠져 아예 세계와의 통로를 닫아버리고 자폐적 공간으로 숨어들어간 소위 엘리트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신랄한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그들의 전문가주의와 엄숙주의는 음험하게도 또한 비겁하게도 장르를 권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37]

1990년대 다양한 문화 논쟁에서 엘리트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은 중요 쟁점이었다. 『상상』은 초기에 신세대론, 동아시아론을 제기해 서구적·근대적 엘리트주의와는 차별화되는 대중관, 주체구성론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리뷰』는 기성 사회질서의 주체성 양식을 거스르는 특징적 대중문화 및 하위문화에 천착했다.

한편 위의 발언에서는 기존 문예계간지들과의 대비 속에서 『오늘예감』이 『상상』, 『리뷰』와 함께 묶여서 거론되었지만, 『오늘예감』의 대중문화관은 『상상』, 『리뷰』와는 또 달랐다. "우리가 대중문화를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는 격전장이라 부르는 까닭은 위 두 문화가 대중문화를 매개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곳에서 싸움을 벌여보고자 함에 있다"[38]라며 대중문화를 역동적인 힘

36) 1996년에 등장한 문화무크지 『이다』의 창간사는 이에 관한 문제의식이 뚜렷하다. "우리는 대중문화의 무조건적인 긍정(엘리트주의의 철저한 부정)을 거부하지만, 대중문화=상투성=상업주의라는 식의 단순한 도식도 거부한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대중문화가 비평적으로 세심하게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 우리의 문화적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뿐이다."(「첫 호를 내면서」, 『이다』 창간호, 1996, 2쪽) 『이다』는 패션, 동성애, 축구, 가상현실 등으로 담론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소비취향들을 정당화했다.

37) 주인석, 「창간에 부쳐」, 『상상』 1993년 창간호, 4쪽.

38) 편집위원회, 「테제로 제안하는 일탈」, 『오늘예감』 1995년 봄호, 8쪽.

관계의 장으로 인식하면서도 대중문화 비판의 의식이 뚜렷했다. 「오늘예감 대중문화비판소모임 게릴라를 모집합니다」라는 안내글을 마저 인용해본다.

> 우리시대 문화와 예술은 정치, 경제에 버금가는 훌륭한 싸움터입니다. 지금의 문화와 예술은 대중문화가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여러 각도에서 저항문화, 민중문화, 노동자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전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확실한 보호, 애정 어린 비판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중문화 자체를 공격해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끊임없는 비평과 의심, 일탈과 외면을 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색안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항적 담론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들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39]

패권을 쥔 대중문화에 맞서 저항문화, 민중문화, 노동자문화에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논제들을 다뤘던가. 이 대목에서 『오늘예감』은 『문화/과학』과도 분명히 다른 노선을 취한다. 대중문화 생산양식에 대한 비판적·분석적 해부보다는 대중문화로부터의 "일탈"을 주창한 것이다. 『오늘예감』의 표지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매호 크게 달라졌는데, 표지를 만든 한정수는 "키치 분위기와 함께 『아이큐 점프』 같은 냄새를 풍기려고 아주 장난스럽게 했죠"라고 밝힌 바 있다.[40] '저속함', '질 낮은 상품'을 뜻하는 '키치'는 '일탈'과 더불어 『오늘예감』식 문화죽이기의 지향성이었다. 『오늘예감』은 손동수, 한정수 그리고 노염화로 편집장이 이어지는데 뒤로 갈수록 '문화죽이기'는 더욱 도발적이고 과격해졌다. 한정수 편집장 시기에는 환각제를 사용할 자유, 마약, 중독, 히피적인 삶을 주목하고 도덕적 계몽주의를 거부했다. 노염화는 「시작하는 예감: 키취인가 새로운 중세인가」에서 『오늘예감』의 정신은 키치라고 선언하고[41] 낙오자, 폭주

39) 편집위원회, 「시작하는 예감: 부자 죽이기 문화 죽이기」, 『오늘예감』 창간호, 1994, 71쪽.
40) 손동수·한정수·김탁환 위의 글, 311쪽.
41) 노염화, 「시작하는 예감: 키취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오늘예감』 8호, 1997.

족, 날라리들의 삶을 긍정했다.

### 2) 대중문화(론)의 어느 지점에 개입할 것인가

『문화/과학』, 『상상』, 『리뷰』, 『오늘예감』의 이러한 문화관, 대중문화관의 차이는 (대중)문화, 문화담론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로 드러났다. 범박하게 구분한다면 『문화/과학』은 대중문화 생산지점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상상』과 『리뷰』는 대중문화의 소비지점을 입체적으로 해석했다. 한편 『오늘예감』은 1990년대에 성행한 문화비평들, 그 논자들에 대한 메타비평적 시각이 두드러졌다.

『문화/과학』은 창간호에서 "문화를 통해 관철되는 지배와 저항"의 상황에 개입하고 나서는 언어(2호), 욕망(3호), 육체(4호), 공간(5호) 등 문화적 요소들의 생산지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이어갔다. 이로써 대중문화지만이 아니라 문화 현상의 해석에 치중하는 다른 문화계간지들과 차별화되는 『문화/과학』식 문화이론을 개척해갔다.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들어보자.

> 관념론적 문화론은 자신의 대상인 '문화'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읽고' 그 '의미'를 해독하기에 급급하다. 이 대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대상이 되고 그 의미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상은 어떤 때는 성스러운 책처럼 신비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상적인 현실처럼 친근한 대상으로 나타난다.[42]

『문화/과학』의 작업은 문화를 통해 재생산되는 자본주의체제에 관한 비판이라는 좌파적 개입방식을 견지했고, 이 점에서 해석주의적·자유주의적 문화주의와 입장을 달리했다. 하지만 문화과학식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

42) 강내희, 『문화론의 문제설정』, 문화과학사, 1996, 23쪽.

했다. 조흡은 『문화/과학』의 십년을 되짚어보는 「문화공학이 외면한 반쪽의 진리」에서 현대의 문화정치는 문화과학식 문화공학 논리로는 움직일 수 없다며 이렇게 비판한다.

> 문화정치의 핵심은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지식인들의 실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형식적 정치 과정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일상의 정치에만 관심을 보이는 대중들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공학론이 주목해야 할 실천의 대상이 생산과정이 아니라 소비과정이었어야 한다는 말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천을 동시에 주목했어야 마땅할 텐데 아직까지 문화공학론이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매끄럽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문화공학론의 이런 문화산업 중심의 문화관은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을 텍스트에 종속된 무기력한 존재로, 궁극적으로는 체제에 희생된 수용자로 이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43]

사실 『문화/과학』은 기존 좌파 진영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의 미시적 문화영역, 가령 노래방, 홍대앞, 패션, 거식증, 록음악, 덩크슛, 패키지 신혼여행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하지만 다른 문화계간지에게 『문화/과학』식 문화에 관한 정치경제학은 기성 문학계의 계몽주의와는 또 다른 도식일 수 있었다. 『상상』과 『리뷰』는 영화, 음악, 만화, 광고, 텔레비전 드라마, 게임 등의 대중문화 '소비/수용 과정'에 개입하는 해석에 주력했다. 문화비평의 과제는 이미 사회현실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중문화의 위상을 인정하되 수용자인 대중을 대중문화의 주체로 상정하여 대중문화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중이 대중문화와 관계하는 양상을 세심하게 해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의미는 수용자의 실천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중은 주어진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특유의 방식으로 해독하며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43) 조흡, 「문화공학이 외면한 반쪽의 진리」, 『문화/과학』 30호, 2002, 312~313쪽.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오늘예감』 진영이 보기에는 대중문화편승론, 대중추수주의일 수 있었다. 『오늘예감』은 당시 성행하던 문화담론을 곁눈질하며 자주 메타비평에 나섰다. 1996년 시점 「시작하는 예감」의 도입부이다.

> 우리 시대의 거대한 이념적 상실감은 결국 '문화담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바벨탑을 건축했다. 소모할 길 없는 시위욕과, 어디엔가 저당잡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겨나지 못하는 젊음들과, 논쟁적인 입담들과, 편들거나 혹은 공격하고자 하는 정치적 열망들은, '문화로부터의 호명'을 저마다 자의적으로 상정하고 그 주변으로 까마득히 결집했다. 그러나 정작 '문화'는 천편일률로 도도했고, 강위력했으며, 언제나처럼 저 홀로 아름다웠다. 많은 사람들은 짝사랑과 과잉해석의 열병만 잔뜩 앓다가 지레 토라졌고,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담론의 홍수 속에서 정치적 지분을 다시 할당받는 데 성공했다. 입지전적인 문화평론가들 몇몇은 아마 홍위병의 등장이 없는 한 새로운 아카데미즘의 영주로서 그들의 잔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그들의 고고한 비판의 목소리는 어쩐지 대중문화의 저급한 움직임과 상호의존하고 있는 듯 보인다. 자신에 대한 비판적 분석조차도 은근히 자신의 추진력으로 사육할 줄 아는 '문화'란 놈의 영악함이다.[44]

『오늘예감』의 '문화죽이기'는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고급문화도 사정권에 두고 있었으며, 선생격인 문학평론가만이 아니라 선배격인 문화평론가도 겨냥하고 있었다. 문학평론가의 계몽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만이 아니라 신진문화평론가들의 대중문화 해석 역시 『오늘예감』 진영에게는 담론권력이며 일종의 지식인적 횡포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엘리트주의가 아닌 아마추어리즘을, 고급문화도 대중문화도 아닌 '키치'(하위문화)를 중시했다. 아마추어리즘을 주목한 이유는 문화담론들이 구체적인 문화 생산과 실천 현장에서 형성된다기보다 지식인들에 의해 관념적으로 주도된다고 여겼기 때문이

44) 편집위원회, 「시작하는 예감: 우리를 위한 마지막 변명」, 『오늘예감』 5호, 1996, 6쪽.

었다. 그리고 이들의 '키치적 심미안'은 동성애, 날라리 문화, 포르노 영화에 대한 지지, 반도덕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표출되었다. 1997년 여름호 9호의 〈기획 특집〉은 '1997, 마이너리티 문화의 죽음'으로 「기획글: 죽어버린 마이너리티와 똥파리들에게 고함」, 「펑크록: 언더그라운드 혹은 펑크라는 이름의 한판쇼」, 「민중록: 음악은 죽고 말만 남다」, 「동성애: 한국지식인나부랭이들 삽시간에 호모포비아를 극복하다」 등 지식인과 평론가가 주도하는 문화담론에 대한 비판과 반주류적 마이너리티 문화들의 분열-탈주적 흐름에 관한 조명에 지면을 전부 할애했다. 그리고 9호의 첫 장을 넘기면 '원고모집'과 '편집위원모집'에 관한 안내글이 나오지만, 9호가 『오늘예감』의 마지막호였다.

## 5. 나가며: 1990년대 문화계간지들의 사상사적 의의

1992년 『문화/과학』 창간으로 시작된 문화잡지의 계열을 잇는 것은 1996년 창간된 『이매진』이다. 창간 편집진은 주인석, 김종엽, 강영희 등으로 과거 『상상』과 『리뷰』의 인사들이 포진했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매진』은 계간지가 아닌 월간지였다. 또한 스스로를 명명할 때 비평이란 말은 사라져 "21세기 문화특급"을 표방했으며 대체로 '복합문화잡지'로 회자되었다. 기업형 출판사(삼성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자본이 대거 투하되었다. 창간호 표지는 이정재의 사진 위로 다음 같은 수록글 소개가 배치되었다. '소설가 구보씨의 뉴욕 구경', '독점연재-움베르토 에코 칼럼', '롤링스톤 특약-X 파일의 진실', '포르노티즘과 에로그라피', '이정재 포토인터뷰', '강영희가 만난 송지나', '존 레논 사이버 인터뷰'. 하단에는 '창간호 특별 사은품'인 '베네통여행용소품백' 사진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집은 '1996 한국 대중문화의 오감도'였다.

창간시 『이매진』은 지식인적 전문지와 패션, 뷰티, 리빙을 다루는 소비적 패션지 사이의 벽을 허물고자 했다. 그리하여 과연 불온한 상상력을 시장 논

리를 활용해 퍼뜨리려 한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출판사와 광고스폰서로부터 편집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지 『이매진』의 행보를 두고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창간 후 반년이 지나 편집진은 물러나고 『이매진』은 욕망대상으로서의 문화, 유행으로서의 문화, 이미지와 기호로서의 문화의 구현장으로 옮겨갔으며, 일년 반만인 1997년 12월에 통권 18호로 실험을 마감했다.

『문화/과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문화계간지들도 1990년대 말을 넘기지 못했다. 『상상』은 1998년 여름호, 『리뷰』는 1998년 겨울호, 『오늘예감』은 1997년 여름호가 마지막이었다. 차별화 대상으로 삼았던 『창작과비평』, 『문학과사회』는 스스로 출판자본이 되어 견실하게 이어졌지만, 이들 문화계간지는 편집진과 발행처의 불안전한 관계, 잡지 발간의 고비용 구조, 거기에 IMF 경제위기가 겹치며 단명하고 말았다.

어림잡아 5년 정도 짧게 이어졌던 이들 문화계간지는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 것일까. 각 잡지들은 활동 중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물신적 대중문화와 자폐적 엘리트문화 사이의 가교가 되겠다던 『상상』은 이동연에게 문화연구의 비판적 담론을 반비판하는 문화적 신보수주의와 상업적인 대중문화의 옹호자로 전락했다고 비판받았다.[45] 다양한 장르와 형식 실험을 이어간 『리뷰』는 정윤수에게 영화, 대중음악, 만화, 미디어, 시각이미지 등등에 대한 비평의 분점권을 넘어서서 장르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토픽의 마련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받았다.[46] 지식인들의 엘리트주의를 힐난했던 『오늘예감』은 정수연에게 문화적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며 그 '습관성 거부증'은 독자를 권태롭게 만든다며 외면받았다.[47]

한편 『상상』, 『리뷰』, 『오늘예감』이 종간된 무렵, 문화담론과 문화잡지를 두고는 다음 같은 비평도 제기되었다.

> 도정일: 9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에 '문화론'이니 '문화비평'이니 하는 다소 새

45) 이동연, 「의미화실천, 주체화양식, 실험공학의 장: 한국 문화연구의 생산적 논쟁을 위해」, 『문화/과학』 13호, 1997, 50쪽.
46) 정윤수, 「관습화된 문화비평과 『리뷰』」, 『한신』 22호, 1996, 146쪽.
47) 정수연, 「『오늘예감』은 어설픈 엘리트주의를 청산하라」, 『오늘예감』 9호, 1997, 178쪽.

로운 담론실천들이 뜬 것도 문화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90년대적 문화연구가 대중 소비문화의 기술과 분석에 일방적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90년대식 문화론은 외국에서 들여온 휘황한 어휘와 개념들로 우리 문화현실의 외피를 기술하는 데 열중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적 문화의제들을 정의해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품현상입니다. 소위 IMF 사태 이후 그런 종류의 '문화론'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거품이었던지를 잘 보여줍니다.[48]

우리의 문화연구는 문화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문화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을 뒤로 한 채 문화산업의 이윤증대와 대중문화의 무비판적 담론들만을 증폭시키고 있다.[49]

두 인용구는 당시 문화담론이 외생적이거나 대중문화에 무비판적이거나 대중소비문화의 기술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비평은 문화계간지들에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으나 『문화/과학』을 포함해 1990년대 말에 사라진 『상상』, 『리뷰』, 『오늘예감』 등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역으로 드러내는 언술로도 읽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대중문화잡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좌담에서 손동수는 "서태지 뜨면 서태지에게 달라붙고 패닉 뜨면 패닉에 달라붙어서는 안 되죠. 비평도 독자적인 자기위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생산자에게 생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힘, 수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이해시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자에게 빌붙지도 않고 대중에게 빌붙지도 않으면서 자기위치를 확보해야만 하는 거죠"라며 문화담론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한 바 있는데,[50] 문화계간지들이 대거 사라진 이후의 문화 관련 담론은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소비적 코드의 단평에 치우쳤다고 평가할 수

48) 서규환 · 도정일 · 강헌 · 김종엽, 「90년대의 문화와 문화연구에 대한 성찰과 전망」, 『황해문화』 21호, 1998, 118쪽.
49) 하상일, 「90년대 문화담론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문화잡지에 대한 비판적 점검」, 『오늘의문예비평』 32호, 1999, 309쪽.
50) 손동수 · 한정수 · 김탁환, 위의 글, 322쪽.

있을 것이다. 1998년 시점에 김성기는 '문화포퓰리즘'을 "대중문화가 보통사람들의 창조성과 즐거움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상업적 대중문화로부터 모종의 긍정적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이론적 추이"라고 정의하며 그 경향이 심화된다고 평했는데,[51] 1990년대 말 이후 문화잡지들은 앞서 손동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스타덤, 스타론, 스타이미지를 중심으로 뜨고 있는 개체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는 편향이 심화되었다.

무엇보다 1990년대 문화계간지들의 의의는 이들이 주류적 문화관과의 대결에서 밀리고 사라진 이후 문화에 대한 다기한 상상력이 위축되었다는 데서 역으로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재원은 '1990년대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라는 부제를 단 「문화이론(과)의 한철」에서 이렇게 말한다.

> 1990년대에 문화이론의 전성기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단 5년간,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1995년까지의 단 3년간이었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물론 숱한 오해와 착각이 있었지만) 문화이론의 문제의식, 즉 문화라는 장소 역시 계급투쟁의 장소라는 문제의식이 정당하게 논의되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은 없었는가? 우리는 왜 문화라는 계급투쟁의 장소에서 패배한 것일까?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우리 역시 (어떤 의미로든) 문화를 항유의 장소로 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문화를 자본축적의 장소로 보는 관점으로 대거 이동해가는 과정을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계급투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52]

그의 회고에 따르면 1990년대는 주류적 문화관에 맞서려던 문화담론들이 패배한 시대였다. 그렇다면 주류적 문화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문화는 향유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권은 '문화입국'을 표어로 내걸고 "문화는 삶의 꽃이다"라고 선전했다. 그때 문화란 일정한 경제

51) 김성기, 「한국에서의 문화연구: 문화 포퓰리즘」, 강현두 편,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나남, 1998, 81쪽.
52) 이재원, 「문화이론(과)의 '한철－1990년대에 대한 개인적 체험」, 『실천문학』 111호, 2013, 107~108쪽.

력을 확보한 위에서 누릴 생활의 풍요를 뜻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에는 이른바 “단군 이래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최초의 세대”가 도래한 대중소비사회의 대중음악·영화·만화·광고 등 온갖 상품들을 향유할 수 있었다.

둘째, “문화는 자본축적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영화『쥬라기 공원』의 흥행수입이 한국 기업의 자동차 150만대 수출의 수익과 맞먹는다는 보고가 나온 이후 정책입안자들은 ‘굴뚝 없는 공장’, 즉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들이 문화산업에 대거 투자하며 문화는 자본축적과 수출품목의 대상으로 지위 이동을 겪었다.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는 문화관광부가 창설되고 ‘문화경쟁력’이 빈번이 강조되었다. ‘문화의 경제화’와 ‘경제의 문화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주류적 문화관이 1990년대에 자리 잡고 이후 공고해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 문화계간지의 시도가 남긴 사상사적 의의를 이렇게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화를 분석하는 새로운 문제틀을 조형해냈다. 문화를 물질적 생산과 정치적 권력의 장으로 접근한 것이다. 문화계간지마다 문화관은 다를지언정 문화를 지배·공모·저항·탈주·해방·굴절이 교차하는 주체 형성의 실천지대로 상정되었다. 그리하여 표현의 욕망들과 감각의 운동들을 억압하고 규범화하는 권력, 제도, 이데올로기, 통념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둘째, 문화담론의 소재와 논제를 확장시켰다. 영화, 연극, 음악 등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영역으로 시야를 넓혔을 뿐 아니라 신체, 감각, 감수성, 욕망, 쾌락, 무의식 등 삶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문화적 논제로 삼고, 민족적·계급적 의미 같은 거대담론에 내리눌린 일상의 이미지, 스타일, 소리, 놀이, 도발, 일탈 등 문화적 형식과 사건들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셋째, 하위문화를 탐구했다. 사회적 모순의 목록에 계급관계만이 아니라 동일성과 차이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선분들을 추가시켰다. 그로써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등 상징질서에서 배제된 존재들을 문화담론 형성의 주체로 가시화내고자 했다.

## ▌참고문헌


강내희, 「대중문화, 주체형성, 대중정치」, 『문화/과학』 6호, 1994.

_____, 『문화론의 문제설정』, 문화과학사, 1996.

_____, 「문학의 힘, 문학의 가치」, 『문화/과학』 13호, 1997.

강내희 · 김정환 · 김진균 · 박거용 · 심광현, 「현단계자본주의 문화현실과 과학적 문화이론의 모색」, 『문화/과학』 창간호, 1992.

김성기, 「한국에서의 문화연구: 문화 포퓰리즘」, 강현두 편,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나남, 1998.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한울, 1995.

노염화, 「시작하는 예감: 키취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오늘예감』 8호, 1997.

도정일 · 황현산 · 임규찬 · 김명인 · 손경목, 「90년대 문학계의 신쟁점을 논한다」, 『실천문학』 39호, 1995.

서규환 · 도정일 · 강헌 · 김종엽, 「90년대의 문화와 문화연구에 대한 성찰과 전망」, 『황해문화』 21호, 1998.

손동수 · 한정수 · 김탁환, 「특별좌담: 대중문화잡지,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 13호, 1996.

신현준, 「1980년대 문화적 정세와 민중문화운동」,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세상, 1999.

심광현, 「문화이론/유물론적 문화지형학 구성의 전망」, 『문화/과학』 창간호, 1992.

_____, 「『문화/과학』 20년의 이론적 궤적에 대한 비판적 회고」, 『문화/과학』 70호, 2012.

오창은, 「유물론적 문화론에서 탈근대적 문화정치로」, 『문화/과학』 30호, 2002.

원용진, 「'계몽'잡지 시대의 종언? – 최근의 문화담론과 대중문화전문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 8호, 1997.

이동연, 「의미화실천, 주체화양식, 실험공학의 장: 한국 문화연구의 생산적 논쟁을 위해」, 『문화/과학』 13호, 1997.

이성욱, 「9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모색」, 『문화/과학』 창간호, 1992.

이윤종, 「『문화/과학』과 1990년대 한국의 문화론」, 『구보학보』 19호, 2018.

이재원, 「문화이론(과)의 '한철 – 1990년대에 대한 개인적 체험」, 『실천문학』 111호, 2013.

정수연, 「『오늘예감』은 어설픈 엘리트주의를 청산하라」, 『오늘예감』 9호, 1997.

정윤수, 「관습화된 문화비평과 『리뷰』」, 『한신』 22호, 1996.

조 흡, 「문화공학이 외면한 반쪽의 진리」, 『문화/과학』 30호, 2002.

주은우, 「금지의 명령에서 향유의 명령으로」, 『한국사회학』 48권 5호, 2014.

주인석, 「창간에 부쳐」, 『상상』 창간호, 1993.

_____, 「왜 REVIEW인가」, 『리뷰』 창간호, 1994.

_____, 「소통, 매체 그리고 새로움 – 주인석」, 『오늘예감』 7호, 1996.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편집위원회, 「『문화/과학』을 창간하며」, 『문화/과학』 창간호, 1992.

_____, 「시작하는 예감: 부자 죽이기 문화 죽이기」, 『오늘예감』 창간호, 1994.

_____, 「테제로 제안하는 일탈」, 『오늘예감』 2호, 1995.

_____, 「시작하는 예감: 색안경을 끼고 문화를 바라본다」, 『오늘예감』 4호, 1995.

_____, 「오늘예감 대중문화비판소모임 게릴라를 모집합니다」, 『오늘예감』 4호, 1995.

_____, 「시작하는 예감: 우리를 위한 마지막 변명」, 『오늘예감』 5호, 1996,

하상일, 「90년대 문화담론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 – 문화잡지에 대한 비판적 점검」, 『오늘의문예비평』 32호, 1999.
홍성태, 「정보사회와 문화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 10호, 1996.

# Which Culture Values Did 1990s Culture Quarterly Magazines Provide?

## – By Comparing Munhwa/Gwahak, Sang-sang, Review, and Oneulyegam –

YEA-YL, YOON*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critical culture theory which originated from the then-educated class through the 1990s culture quarterly magazines such as Munhwa/Gwahak, Sang-sang, Review, and Oneulyegam. In the 1990s, the mainstream cultural value was that culture is either 'object of enjoyment' (early to mid-90s) or 'domain of wealth accumulation' (mid to late 90s) but the aforementioned magazines provided other possibilities of understanding culture. They approached culture as the stage of forming social principal agents and political power effect and pioneered new domains of culture discourse and research. Nonetheless, they adhered to distinct cultural values, continued planning for differentiation, and organized distinct points of intervention through culture production and consumption domain. This study analyzed the common points and the turning points of culture quarterly magazines and looked into their historical legacies.

**Key words** : 1990s, culture quarterly magazine, popular culture, cultural value, formation of principal agent, Munhwa/Gwahak, Sang-sang, Review, Oneulyegam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2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2월 25일

* Research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Center on the Commons and Sustainable Society